

 <b>국토해양부</b> <small>Ministry of Land,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</small>		<b>보 도 자 료</b>	
		배포일시	2009. 8. 25(화) / 총 2매
담당 부서	자동차손해보장팀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팀 장 김종해, 사무관 박병규</li> <li>• ☎ (02)2110-8705, 8706 pg5600@korea.kr</li> </ul>
보 도 일 시		2009년 8월 26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, 방송, 인터넷은 8.25(화) 17:30 이후 보도	

□ 국토해양부는 **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되면,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를 유도하게 됨으로써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 구제와 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.**

## 뺑소니 차량 신고시 최고 100만원 포상금 지급

- 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”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-

-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**뺑소니 차량**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**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된다.**
- 국토해양부(장관 정종환)는 **뺑소니 차량**을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**뺑소니 차량 운전자를 검거**하게 될 경우, 신고자에게 **최고 1백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**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「**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**」 개정안이 8.25(화)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, 금년도 정기국회에 상정·의결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.
  - ※ 포상금 지급대상,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
-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**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는 장시간 방치로 인해 사망이나 중상의 위험이 크고, 주로 차량소통이 적은 장소나 시간대에서 발생**하므로 **뺑소니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**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.
  - ※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 및 보상금액('08년 기준) : 5,252명, 247억원
  - ※ 유사입법 사례 : 식품위생법 위반시 최고 30만원, 농산물 허위표시 신고시 최고 100만원, 환경오염물질 배출 신고시 최고 100만원